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5 월호



크리스찬 가정의 중요성과 세가지 윤리

가정은 인간의 자아의식과 자기 형성을 키우는 온상이며, 인간은 가정속에서 가족관계를 통하여 인간관계성을 배우게 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과 책임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임성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인간 공동사회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요, 가장 중요한 소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도 가정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가정의 중요성은 하나님 편에서의 귀중성을 언급하고 있다. 성경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와, 가정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 가정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가정의 중요성은 그것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하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토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家長)으로 섬기며, 온 가족이 가장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대로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의 첫번째 윤리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것 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면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것을 보여 주셨다. 때로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사랑하듯,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신부가 신랑에게 순종하고, 신랑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성

도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참 기쁨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부부간의 생활과 부모와 자녀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나아가서는 천국을 연습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의 두번째 윤리이다.

세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그의 구원사역을 전개하시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고, 개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결코 타인의 신앙이나, 가정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을 통해 그 가정이 축복을 받으며, 개인을 통해 그 온 가정이 구원의 은택을 입게 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노아를 통하여 그 온 집을 구원하셨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과, 일가와 가까운 친구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며(행10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행 16:25-34)

한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곤 하셨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생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행했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고, 이사야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자기 가정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날마다 발견해야 하며, 자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섭리를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의 세번째 윤리이다.

성도의 가정은 단순히 사랑과 화목과 안일의 장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온 가족이 날마다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는 천국의 지소가 되어야 한다. 천국의 지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가정이요, 성도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일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5호 통권88호

— 5 월호 차례 —

권 두 언	크리스찬 가정의 중요성과 세가지 윤리.....주 간 · 2
이달의말씀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김장민 · 4

월간 충현

□ 특집 / 우리 집의 가정예배 □

- 가정예배 - 왜 중요한가.....김원남 · 6
- 차신득 집사택.....이승순 · 6
- 신성종 목사택.....이건숙 · 8
- 조선근 장로택.....조선근 · 10

칼빈주의	영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⑥.....김하진 · 11
여행보고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최 환 · 14
편집실칼럼	깨끗한 생활.....손경수 · 18
찬송가감상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김하진 · 18
책 소개	천 국.....오치용 · 19
책 정보	4월중 들어 온 도서.....도서실 · 19
교육이론	새로운 기독교 교육이론 및 방법.....문창수 · 20
기관소개	새가정부.....편집실 · 22
독자의글	다니엘을 생각하며.....김선자 · 24
새교우	새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편집실 · 26
권찰수첩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김원남 · 27
선교소식	선교지 · 선교사 소식.....해외복음선교회 · 28
교계소식	월간 교계 뉴우스.....편집실 · 30
교회소식	편집실 · 31
5월의행사	편집실 · 34
편집후기	편집실 · 34
화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편집실 · 35
표지설명	5월 첫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 목사님들이 영아부 · 유치부 어린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엡 6 : 4)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자식들을 축복하며 키우는 부모가 됩시다」라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드리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바로 키우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아서 땅위에서부터 천국을 숨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1)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데 거기에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물리치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하나 하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한번은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까 물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어린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생명을 어른의 생명보다 조금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의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린 아이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뱃줄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면서 어린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 딸은 내 것이라는, 자기의 소유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맡아서 키우는 책임을 맡았을 뿐입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부모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들이니까.

1) 몸을 잘 키워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지혜롭게 먹이고 몸의 위생에 맞는 옷으로 때를 따라 입혀서 잘 키우는 것이 첫째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악에 때문지 않은 돈, 하나님께 욕되지 않은 돈, 남의 가슴을 치게 하지 않은 깨끗한 돈으로 어린 아이의 몸을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 지식을 바로 키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지식을 먼저 키워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키워주어야 합니다. 기초돌이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과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기초로 세상지식을 바로 배우게 하여 이용하게 되면 겸손한 실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이 세상의 지식만 배워서 세상 지식에 포로가 되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배운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 딸을 키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키우는 법을 간단히 다섯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기를 낳으면 첫날부터 아기가 자려고 할 때에 자장가 대신 시계명을 읽어 줍니다. 듣지도 못하여 알지 못하지만 성경 읽어주는 것이 아기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젖먹는 동안만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40년 동안이나 애굽 궁궐에서 살았으나 애굽의 죄악에 배물지 않았읍니다.

둘째,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 보든지 안보든지 책임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째, 협동정신을 키워줍니다. 형제, 친구, 민족끼리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째, 돈을 많이 벌되 함부로 쓰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섯째, 천대받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적은 수의 민족이지만 큰 복을 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읍니다.

3.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1)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농부가 과실나무를 적당한 비료를 주어 정성으로 키우듯이 풍성한 양식을 주며 키워야 합니다.

2) 나쁜 환경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나무가 자랄 때에 주위의 잡초를 제거해 주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립니다.

이와같이 부모는 자식이 자랄 때에 손에 든 책을 살펴보고 인격에 영향이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양식만 먹을 수 있도록 나쁜 책과 나쁜 친구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랄 때의 나쁜 성격도 고쳐 주어야 합니다. 잘라서 아픈 것은 지혜롭게 싸매어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부가 때를 따라 소독하듯이 자식의 생활을 검토해 보고 나무에 소독약을 뿌리듯이

자식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힘써 주어야 합니다.

3) 축복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어떤 것을 축복합니까.

첫째, 실력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자량은 실력이고 나이 많은 사람의 자량은 업적인데 젊어서 실력을 쌓지 못하면 업적이 남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축복합시다. 몸이 건강하여야, 지혜가 있어야 힘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야, 믿음의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힘을 가진 실력자로 자식을 축복합시다.

둘째, 성공자가 되게 해 달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꽃을 보고 성공했다고 안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성공자라 하십니까. — ‘열매를 보아 알지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 높이는 성공자, 사람에게 복을 안겨주는 성공자,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상 받을 수 있는 성공자가 되게 해 달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총현의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 주다가 아이 얼굴에 사랑의 정성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아이가 큰 다음에 백번 때리는 것보다 천배 효과를 냅니다.

어린 생명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어린 생명 축복하면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라의 장래에 복 받을 수 있고 우리 장래에 복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 왜 중요한가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현 성도의 온 가정, 온 식구들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생각하며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몇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가정예배의 성경적인 배경

1) 족장시대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과 그의 가족과 계약을 맺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9) 라고 하셨다. 그리고 족장들은 그 당시 「예언자」, 또는 「제사」, 또는 「왕」으로 불리웠는데 이들이 공적인 예배에 으레히 사회를 했고 그 예배장소는 가족과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옛날 이스라엘의 족장과 그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실례를 성경에서 찾으면 아브라함은 마음의 제단을 어디든지 가지고 갔다. 가족이 이동할 때,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족과 더불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세겔 땅 모레 상수리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하셨다. 이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창12:7) 또 벨엘 동쪽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고 역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창12:8) 또 창13:18에는 헤브론의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아래 이르렀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족장시대는 그 예배의 전부가 가족중심이었다.

2) 율법시대의 예배

율법시대는 그 예배의 특색이,

- ①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렸으며
 - ② 예배의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지어졌고
 - ③ 예배는 특정인(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신 드려주었으며
 - ④ 예배는 의식적이었다.
- 이와같이 율법시대의 예배가 특색을 가졌을 때에도 가족적 예배는 존속하였다.

3) 포로 이후 시대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구약의 예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포로민들에게 허락된 것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였다. 겔 8:1-에서 보면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와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여기서 집이 회당, 「모이는 곳, 또는 회집하는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모이게 되었던 것이니 이 역시 가정에서의 예배는 지속되었다.

4) 신약시대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존속하였다. 행 15:21-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또 4:16-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행 2:46-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날마다 모인 것은 제사 드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림과 동시에 집에서 예배가 드려졌다. 행 2:46-47; 5:42-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서 칭송을 받으

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렸다. 행20:8-에는 집이나 뿔 다락에서 예배드렸다는 말도 있다.

2. 가정예배의 중요성

1) 예배의 본질

예배는 은혜계약에 기초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 곧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통한 예배는 있었다. 악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고 하는 교제이다. 그리고 범죄 후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함은 물론이요,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마”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니 그 얼마나 행복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같이 해준 개인, 가족, 국가 모두 복될 것이다.

2)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면에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엡 4:11-16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하였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완성되고 죄인이 개종하는데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가정예배를 통하여 정 온 식구들이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고 죄악을 제거하고 성도로서 완성될 것이니 가정예배가 예배의

목적의 위치에서 볼 때도 중요하다.

3) 가정예배의 실제적 효과

가정들이 아침이나 저녁시간, 하루 그 어느 시간 가정예배를 드릴 때 교회나 그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가족 식구들의 신앙이 놀랍게 자란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소년, 청년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죄악을 뉘우치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되고 경건되게 살게 된다. 항상 감사할 일들을 찾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살게 되며 가정의 매일매일 생활은 생기를 띄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식구 위에 분명히 같이 하는 것을 심령 깊이 느끼게 되어 담대하여져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그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힘으로 용감하게 처하여 승리하며 죄악의 세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감사하면서 사니 하나님은 더욱 복위에 복을 주어 심령이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복이 넘치는 것이 나타나 보여 높임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며 항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 욕심부리는 기도보다 복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의 기도는 감사뿐이다. 그 이유는 가정이 예배중심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설계하는 그 모든 일을 한 걸음 앞장서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이번 대집방이 5월로 끝나는데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느껴야 하겠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다면 가정예배를 못드리는 부끄러움부터 해결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넘치도록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쌓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재물과 자손만대에 번창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충현의 성도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불을 각 가정에 붙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선한 일을 주고 자손대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차신득 집사 님

습관적이 아닌 정성스런 첫 시간이 되게

이 승 순
(제1 성가대 반주)

결혼전에는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으레 “예수 사랑하자”고 불러 일으켜야 일어나 피동적으로 아침 가정예배를 드렸던 때가 더 많았다. 그럴 때면 “이렇게 짧고 바쁜 아침 시간에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안드리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하여 많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가정예배를 비록 짧고 바쁜 시간이지만 단 몇 분이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아침식사를 하도록 했던 것이 이제는 가정을 인도하는 입장이 되어 아침 가정예배가 신앙생활의 당연한 순서가 되어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혹 아빠가 어떠한 일로 가정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다 할찌라도 복근(5세), 복희(4세)와 함께 셋이라도 아침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아빠와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되었던 것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 아이를 중심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기에 찬송을 부를 때는 낮에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찬송가 한곡을 계속 불러 줌으로 아이들 귀에 익어 따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며칠동안 같

은 찬송가를 익혀주어 예배 때에는 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찬송가를 택해 같이 부르고 있으며, 성경은 한 귀절을 택해 일주일정도 아이들에게 따라 읽게 하다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하곤 한다. 기도 역시 아빠, 엄마 순서로 기도하며 아이들도 간혹 따라하게 함으로 간단한 기도는 되풀이 하는 동안에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신성종목사 님

실제적 생활습관이 되도록

이 건 속

(소설가)

우리는 무섭게 변하는 사회속에 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기막힌 속도를 내서 따라야 한다.

「예수도 부지런해야 믿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 부지런하다는 말속에 많은 뜻이 숨어 있다고 본다.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 두 개를 가졌으니 믿지 않은 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요즘은 제법 대견스러워 보일 때가 많다.

둘이켜 보면 매일 매일의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신앙생활의 중심이었으며 온 가족이 마음을 합쳐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며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녀교육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동네앞에 와서 “빨리 예배드리고 밥 먹자”고 배고파하는 소리에 일어났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바랍은 예전에 내가 느꼈던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기에 앞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첫시간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렸다.

상의 사람들보다 두 배의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물든 주변에서는 모두가 바쁘다고 아우성이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으로 어른은 어른 나름으로 급류에 밀리듯 흐느적거린다.

이런 흐름속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길 수는 없다.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보자. 싹이 트지 않은 씨앗은 소용이 없

다. 싹을 나게하고 키우기 위해 매일 물을 주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일주일에 한 두번 성전들을 밟는다고 씨앗이 풍성히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집안에서 기르는 화초도 매일 사랑을 받아야 더욱 생기있게 자라듯이 아이들의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자란다.

연년생의 아이들을 가진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여러 형태로 시도해 보았다. 어려서 글을 못 읽을 때는 성경동화를 위주로 예배를 보고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엄격한 예배형식을 주장했다. 묵도, 찬송, 성경읽기, 설교, 돌아가며 온 식구가 기도하기, 찬송, 주기도 순으로 한시간에 걸친 가정예배를 저녁마다 실시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 옹고집이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흠어지면 내 얼굴이 찌그러지니 아이들도 눈치를 슬슬 봤다.

「하나님과과의 대화시간이야. 알았어?」

입에 익은 호령이 매일 거듭됐다. 한 시간을 정좌하고 앉히려는 엄마의 눈꼬리가 무서워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나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쳤다. 할머니가 오신 날은 할머니 차례의 기도가 삼십분 이상 계속되니 막내는 한숨을 푹 푹쉬고 궁둥이는 하늘로 뻗고 흔들다 코를 곤 적도 있다.

「어머니 오분만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긴 기도에는 적응을 못해요.」 번번히 나는 주의를 주지만 소용없다.

「밤새 기도하는 버릇이라 시간 축정이 어렵구나.」 무엇이 기느냐는 표정이다.

이래서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지



루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엄마! 시험 때인데 하루만 쉬자.」

큰 애가 허를 날름이며 유혹도 했다. 어쩌다 중단하는 날이면 무슨 이유를 꾸려서라도 피하려 했다. 꾸중을 한참 하고 물려 앉히니 마음이 괴로운 적이 많았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지 하는 부모의 집념과 아이들의 생활에 조화를 이루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부부가 곰곰히 연구 끝에 새로운 방침을 세웠다. 형식보다 실제적 생활습관이 되도록 하자. 부담감을 주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케 하자. 일생 성경읽는 습관을 길러주자, 하는 원칙에 부부가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아침 식사전 성경 한장을 돌아가며 낭독하고 요절 한 절을 외고 기도한 후 식사를 하기로 했다. 모두 쫓기는 시간이라 행동에 통일이 오고 요절암송도 빨랐다. 처음에는 부모가 요절을 택해 주었으나 이

제는 각자가 좋아하는 구절을 골라 골라낼 수 있다. 대부분 자기 생활과 관련해서 반성할 내용을 택하든지 마음에 박히는 진리의 말씀을 골라냈다. 아이들의 이런 능력에 우리는 가끔 놀란다. 재미있는 일은 막내가 제일 빨리 외우고 엄마 아빠가 끝까지 됐다.

요즈음은 허를 내밀며 성경을 안 읽겠다는 큰 아들의 애교도 없어지고 아침 7시 30분이면 성경을 들고 모두 식탁으로 온다.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모두 민첩히 움직인다.

일주일 전부터는 외운 성경구절에 붙은 줄을 그어주니 더욱 재미있어 했다. 또 자기 성경책에 애착을 느끼는 듯 했다.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 순종의 상, 신앙의 상, 은혜로 준 자식이라고 쓰여있다. 이렇게 선물받은 자녀를 강아지처럼 재미로 길러도 안되고 세상 물결 따라 크는대로 내놓아 자라게 할 수도 없다. 모든 생활의 초

* 특집 - 우리 집의 가정예배 *

점을 성경에 맞추고 생활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로 길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린이주간과 어버이주간을 맞아 하루 나들이를 가거나 선물을

꾸집히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정예배의 생활화를 각가정 나름으로 생각해보며 설계를 해보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 선 근 장로댁

어른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조 선 근 장로

(월간중현 편집위원)

자녀 중심의 가정예배로 방식을 달리하면서부터 우리 집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의무감에서 드러지던 기도회가, 기다려지다가 드리는 가정예배로 바뀌어졌다. 아침시간만 아니라,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면 저녁이라도 온 가족이 단란하게 둘러앉아 같은 목소리로 신앙고백하고, 찬송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작으나 아름다운 가정교회!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귀하게 생각한다.

가족 다섯 식구가 - 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딸(국교 5학년)·아들(국교 2학년) - 돌아가며 인도하는 우리 집 가정예배(약 20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두 번 담당할 때 요일별로 고정이 된다. 즉 주일 - 할아버지, 월요일 - 아빠, 화요일 - 엄마, 수요일 - 유라, 목요일 - 요한, 금요일 - 할아버지, 토요일 - 아빠가 하게 된다. 가정예배의 순서는, 1. 묵도.....다같이 2. 사도신경.....다같이 3. 찬송.....다같이 4.

성경.....하루에 한장씩(5절씩 윤독함) 5. 기도.....사회자 6. 주기도.....다같이. 여기서 '성경'은 낭독으로 끝나든가, 그 장의 중요한 뜻이나 요절을 잠깐 강조하는 것으로 그친다. '기도'는 길지 않지만 사회자에 따라 내용이 나 범위가 달라진다. <우리의 기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 1. 우리나라 위하여 - • 예수님은 백성되게 • 공산당 쳐들어 오지 못하게 • 나라가 통일되게 2. 우리 교회 위하여 - • 새 예배당 잘 짓게 • 성경공부 잘하게 • 선교사업 잘하게 3. 우리 이웃 위하여 - • 친척·친구 생각하며 •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게 • 전도를 할 수 있게 4. 우리 가정 위하여 - • 할아버지..... • 아빠 • 엄마 • 아빠 직장... • 믿음과 화목한 가정(우리 집 가훈)..... 5. 나 위하여 - • 교회생활 잘하게 • 학교생활 잘하게 • 지혜로운 사람 되게 • 부지런한 사람 되게.

아이들도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되니까 혹 장로교 예배모범에 어떤까 염려도 없지 않아서 사회자는 전날 밤 찬송부를 훑과, 많은 기도 범위 중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게 한다.

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 : 6~9)

칼빈주의 종교관



김 하 진 목사
(6지구신방담당·성가부지도)

칼빈은 16세기 세상의 주시를 받으면서 가장 순수하면서도 성경적 양식을 지닌 완전한 종교적 건축을 세워 놓았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제약이나 조건에 잘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만 제약을 받지 다른 어떤 세력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할 때는 ① 그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와 ②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③ 그 성격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 관하여 카이퍼(A. Kuyper)박사는 참 종교를 알아보는 네가지 시험 조건을 제시했다.

① 그 종교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② 그 종교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가?

③ 그 종교가 부분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인격적 존재 전체를 포함하는가?

④ 그 종교가 정상적인 구원적 성격을 가졌는가? 아니면 비정상적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관한 칼빈주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종교는 자기중심적 즉,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중심적, 즉,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 종교는 간접적 또는 인간의 개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라야 한다.

③ 종교는 인간의 생활 가운데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해야 한다.

④ 종교의 특성은 구원론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성에서부터 중생함으로 변하여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참 종교라는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카이퍼박사는 말하기를 철학자들이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이끌리는 것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결국 자신의 안전, 자유, 향상,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죽음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종교가 유일신교로 발전한 경우에서 까지도 신에 대한 예배는 변함없이 인간을 돕기 위하여 있었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시에 원조와 해방을 주기 위하여, 혹은 최악의 세력과 끊임없는 투쟁에 있는 인간에게 보다 고상한 사고(생각)를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종교는 이기적 욕구가 충족됨과 동시에 무용화되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고대 모든 비기독교의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종교의 과정이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오늘날 고도로 변형한 사회나 문화계급에 속하는 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입장은 그러한 것과는 정반대다. 칼빈주의는 종교가 가지는 인간적이며 주관적인 면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가 필요시에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종교성이 요구되고 또 종교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적 동기에서 종교의 본질과 목적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종교가 인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의식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적인 인간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종교의 모든 동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수단과 방편이며 하나님만이 종교의 목적이며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무종교적, 비종교적인 것은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의 뜻에 전념하는 것이 종교의 정수이며 핵심이라 하였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가지는 종교의 근본적 개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마 6:9, 10)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롬 11:36)한 말씀에서 찾는다. 주기도는 종교생활의 가장 깊은 표현을 지닌다. 이것이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종교의 근본적 개념이며 아직까지 아무도 이보다 나은 개념을 찾아내지 못했다.

2. 종교는 직접적인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서는 예외없이 인간적종교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성모 마리아나, 천사의 무리, 성자와 순교자, 성직자들을 중보자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칼빈은 종교는 일체의 피조물적 중보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 직접적 교통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칼빈이 제사를 증오하거나 순교자를 경시하거나 천사의 의의를 멸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끼어 들어 스스로 중보자인척 하는 종교적 책망자에 대하여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물론 타락한 인간이 진정한 종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중보자는 인간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인(God-man)인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성령의 내주에 의하여 거듭난 자만이 확신할 수 있다. 인간을 위한 종교는 인간이 같은 인간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위한 종교는 모든 인간적 중보를 배제한다. 모든 제사적 개입이 사라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속사람의 영혼과 직접 결합하는 곳, 신적 빛이 우리 마음의 깊은 데로 들어오는 곳에서만 종교는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3. 종교는 부분적인가?

만약 종교의 목적이 인간 자신속에서 발견되고 그 실현은 교직을 가진 중보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종교는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종교가 인간의 유익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종교는 인간의 생활 조건에 따르는 예속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부분화된 종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자유주의에 의하여 더욱 더 나타나고 있다. 카톨릭교회에서는 종교란 자기자신의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종교의 영향을 교회가 성별한 생활의 부분에만 제한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카톨릭 교회는 생활의 성(聖)과 속(俗)의 측면에 경계선을 긋고 자체의 신성한 경내를 종교적 열의의 정도에 따라 세분했다.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종교를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에만 제한하는 것은 칼빈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한 존재의 불변적 법칙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생활을 위한 이와같은 법칙과 계명을 완전히 규정해 주었으므로 모든 생활은 엄밀한 복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고 칼빈은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이다.(롬 12:1) 따라서 칼빈은 밀실이나 수도원이나 교회에 갇혀 있는 종교를 싫어한다. 구약의 시인과 같이 하늘과 땅, 모든 사람들에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편재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4. 종교는 구원론적인가?

종교는 일반적 방법이 아닌 특수한 방법, 즉 구원론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므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반드시 구원론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앞에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을 무죄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종교가 정상적인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어서 순수하고 진정한 종교에 따르도록 창조했다. 따라서 이교 사상에서 발견되는 낮고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많은 종교 형태는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다. 그러므로 진

정한 종교의 회복은 구원론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며 죄가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것인가를 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근원이 바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라는 생각은 칼빈주의에서만 더 심오하게 나타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요 3:3-5)고 한 것처럼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 이 중생의 필요성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중생을 통해서만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중생의 필요성, 즉 인간의 존재와 생명전체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필요성은 시대가 발전한다고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중생시켜 구원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여가지 중요한 사상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칼빈주의는 종교를 인간을 위한 공리주의적, 행복론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종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교리이다.

둘째,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어떠한 피조물의 중보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종교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 사역이며 내적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다. 이것이 선택의 교리이다.

세째, 종교는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부가 종교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은총 혹은 보편은총의 교리이다.

네째, 죄악의 상태에서는 종교가 정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론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다. 이상에서 생각한 것이 칼빈주의가 취하는 종교적 태도라 하겠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합니다

충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충현의 강단을 통해 말씀되어지는 설교 및 강해와 찬송등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보급하고 있는 종류는

- ① 김창인 목사의 주일설교 및 수요강해
- ② 협동목사의 주일설교
- ③ 부목사의 주일저녁설교 및 수요설교
- ④ 성가대의 찬송가 선곡 (1) (2)집 및 영아·유치·초등부 찬송

종 류	보급 가격	내 용
90분짜리	1000원	설교포함, 예배순서 전체
60분짜리	700원	설교만
찬 송	1000원	영아·유치·초등·찬송가 (1)(2)집
녹 음	60분 300원 90분 400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할때

● 보급소는

교회 뜰 우측 「카세트 보급소」에서

● 문의 및 신청

월간충현편집실 전화: 260-3407, 340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출판국



(현재 건축중인 성전 건축 좌편이 본당이고 우편이 교육관인데 교육관 건물은 마지막층인 5층 시공중에 있음)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집사

(새성전 건축 현장감독)

무디교회는 1925년 (56년전 완공)에 완성이 되었지만, 만일 그 건물이 서울의 어느 곳에 세워진다면 해도 제일로 손꼽히는 명물일 것이다.

실내의 조명은 매입형식(Down Spot Light)과 매다는 형식(Pendant Light)으로 병행해서 꾸미고 음향의 조정은 처음 건물이 완성될 때만 하더라도 전자음향이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명조정실이나 음향조정실, 녹음실이 별도로 없고 노출로 된 조정테이블(Control Table)로서 전체적인 음향 및 녹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새성전에도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서 별도의 조명 및 음향조정실과 동시번역실을 사전에 계획하여 놓았다.

건축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공간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세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장비, 기기, 기구가 건축에 수평이나 수직균형에 맞추어 우리 일상생활이 과학화에 따른 기능주의(Functionalism)화에 최대한으로 계획하는 것이 현대 건축계획이라고 하겠다.

10일째 되는 날, 우리 일행은 워싱턴으로 떠날 준비를 완료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오진국 장로님의 친우되는 정동수씨는 우리 일행을 시카고 전체를 자기 차로 직장도 쉬면서 안내를 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시카고 비행장까지 배웅해 주어서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다. 우리 일행을 식사도 대접했고 자동차로 안내를 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비행기타는 것도 익숙하여졌고 모든 여행생활이 부드러워진 셈이다.

워싱턴 공항에 내리니 오진국 장로님의 친구인 김창호씨가 사람을 시켜서 마중을 나왔는데 그분 이름이 이성수씨였다. 공항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점심 때가 지난 1시 30분경이었다. 이선생은 우리 일행을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안내를 하여서 한국식 짜게백반을 먹고나니 온몸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이선생은 우리 일행을 웰링턴에 있는 국립묘지로 안내하여 그곳에 가보니 눈이 조금 쌓여 있었다. 그곳에는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한국동란, 월남전쟁때에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들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한국전쟁때의 전사기념비 앞에 서니 감개가 새로와질 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사람들이 보기에 저희 동족끼리 전쟁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루속히 북한선교가 되어서 무혈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 묘지는 대통령의 묘지나 일개 일등병의 묘지가 같았다. 다만 묘비에 이름이 대통령 아무개 하는 것과 일등병 아무개 하는 것이 달랐다. 이곳에서 또 특기할 만한 곳은 케네디 대통령의 묘와 그의 아우인 로버트·케네디의 묘가 특이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묘에는 그의 성격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켜 놓았는데 불꽃은 촛불보다 약 3 배 가량 큰 것으로 연료는 까스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조적으로 로버트·케네디 묘 앞에는 물결도 치지 않는 맑은 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그는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청렴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은 링컨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념관 외부 전체가 회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돌기둥으로서 기둥 머리부분 형식이 도릭식(Doric Order)으로 되어 있으며 워싱턴 광장 끝부분이며 마주보이는 끝부분에는 국회의사당이 있다. 민주주의의 3대원칙을 제창했고 흑인 노예해방을 부르짖어 현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한 그의 기념관 맞은편에 국회의사당이 있으며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대법원장 임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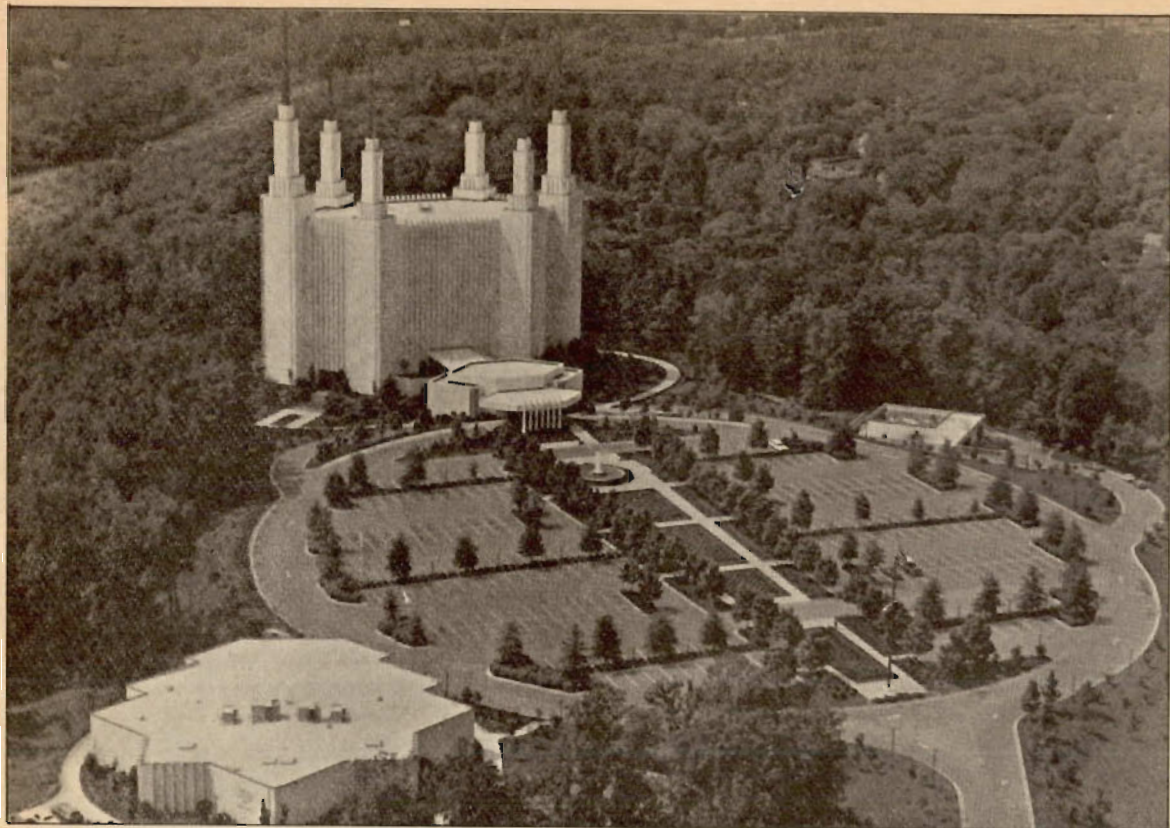
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일행은 그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나니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숙연해졌고 감개가 무량했다. 정치인으로서 그 앞에 서면 어떠한 각오가 서겠는가?……

우리 일행이 그 앞을 지날 때는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로 한창 바빴다. 워싱턴 광장 앞에는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고 워싱턴 광장 한가운데로 기념관과 의사당 사이를 인공적으로 큰 호수(Famous Reflecting Pool)를 만들어 놓았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때는 눈덮인 겨울이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많았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흑인 지도자 킹 박사의 생일이라고 하여 지방에서 수십대의 버스로 흑인들이 왔기 때문에 워싱턴 광장에는 온통 흑인들 뿐이었다.

링컨 기념관에서 오른쪽으로 약 5 분 정도 걸어서 미국의 3 대 대통령 제퍼슨 동상이 있는 기념관이 있는데 링컨 기념관보다 더 아름답게 건축하였다. 이곳에서 조금 더 돌아가니 백악관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백악관은 특별히 높은 담장을 하거나 무시무시하게 경찰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영성할 정도로 훤히 들여다 보였다. 물론 말로 듣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전자장치를 했기 때문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것이 링컨 기념관이다)



〈워싱턴 물몬교회 전경〉

하루를 완전히 마치고 저녁식사는 오진국 장로님 고등학교(대광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이며 죽마고우(竹馬故友)인 김창호씨 댁에서 저녁식사를 초대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보니 대지는 1에이커(약 1200평 정도)에 주택이 아담하고 꽤 커 보였다. 식사후 신앙 이야기와 세울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호텔에 돌아왔다.

11일째 되는 날 김창호씨 회사에 근무하는 이선생이 아침 일찍 호텔로 와서 오늘은 워싱턴에 있는 모든 원하는 곳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하여 준비를 하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에 물몬교회가 매우 웅장하고 크게 보였다. 이 물몬교회는 템플(Temple)이라는 것이 특징이며 이 성전의 평면형식은 6각형으로 되어있고 6각형 키마다 뾰족탑이 있으며 그 첨탑은 황금색깔로 되어있어 제일 앞에 있는 첨탑위에는 십자가 대신 여자천사가 나팔을 불고있는 조각이 있고 건물의 전체가 흰색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적인 건물같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첨탑 사이사이 면에는 수직루바(Vertical Louver)로 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백색 대리석으로 건물의 전체가 수직면을 살려서 건물구성이 되어 있었다.

물몬교회에 들어가서 건물내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니 스펜서 장로(Elder Spencer)께서 먼저 별실인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하여 물몬교의 교리를 들었다. 그곳은 모두가 색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스펜서 장로가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니 막이 열리면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는 모두가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면이 끝나면 회전무대같이 되어 있어서 빙빙 돌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마네킹 모양으로 만든 사람의 모형이며 조명장치이며 음향장치가 초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경의를 금치 못할 정도였다.

성전내부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 성전 내부는 관리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강대 부분은 대법원같이 좌석배열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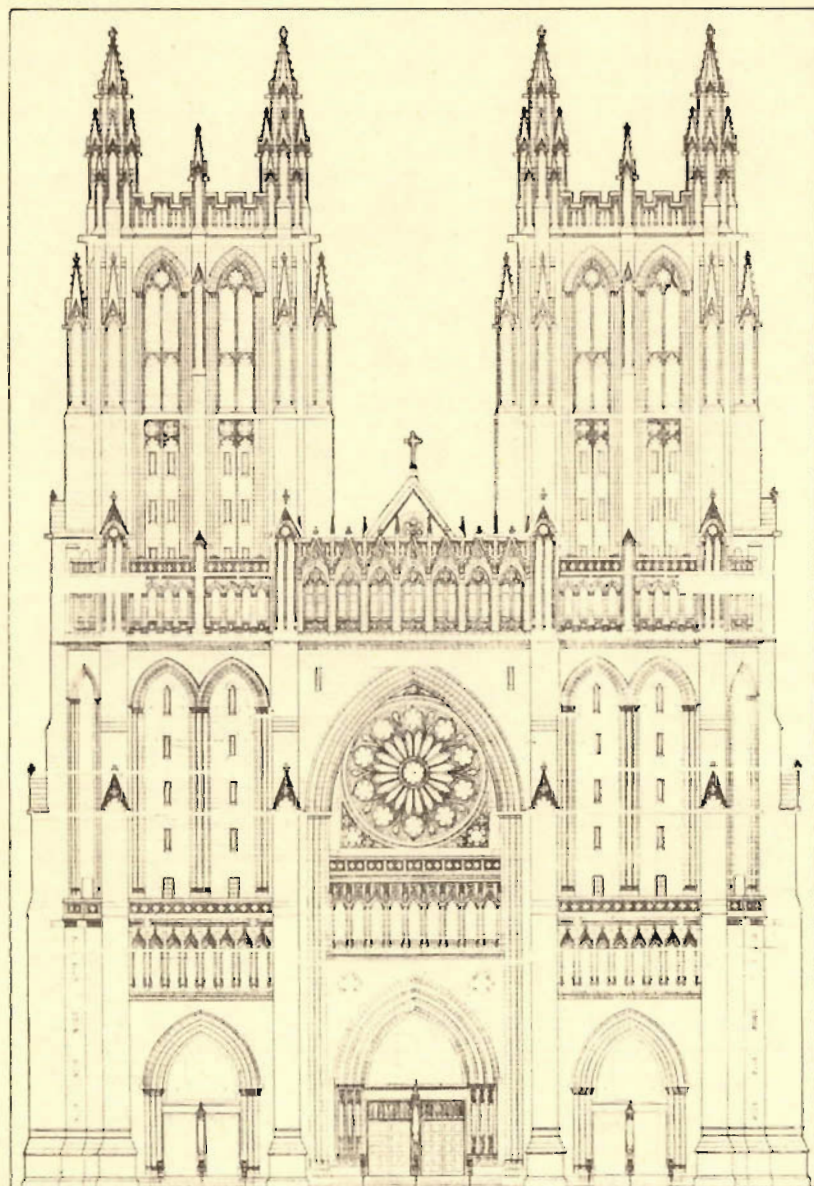
성전 외부의 조경은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숲속에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경계획도 구사할 수가 있었다. 나무에는 수십만개의 콩알만한 전구를 달아서 불을 켤 수가 있어서 야경도 새겨 어느 성전을 능가할 만큼 꾸며 놓았다.

다음은 워싱턴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 있는 워싱턴 성당(Washington Cathedral)을 찾아 갔는데 전전의 외형은 완전히 고딕식으로 외부의 전체가 돌을 붙였고 그 돌은 인디아나에서 생산되는 돌을 붙였는데, 돌의 재질은 한국의 화강석과는 달랐다.

내부는 5세주(5랑식)형으로 되어 있고 객석부분에는 여러개의 개구부 때문에 음향관계가 그렇게 크게 울림이 없었다. 창문은 전체가 색유리(Stained Glass)로 되어 있고 창문의 공간에는 우주인이 달에서 가져온 월석(月石)을 넣었다. 본당밑 지하층엘 가보니 굴속같이 옛날 초대교회때 교회의 수단인 지

하무덤교회(Catacomb), 즉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지하무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한 초기의 교회가 지하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보았다고 한다. 교회 안에는 여러개의 조각모양이 있는데 로버트 피나트(Robert Pinart)라는 사람이 창문밑에 툭 튀어 나온 형태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관을 꾸몄으며 아브라함 링컨관(Abraham Lincoln Bay)에는 링컨 두상이 새겨진 기념주화를 석관에 넣어 두었으며 창문 밑부분에는 링컨의 민주주의 원칙을 조각으로 새겨서 붙였다.



(워싱턴 교회 모형도)

평면형식은 십자가를 기본으로 했으며 중앙 앞부분은 로마건축에서 변형된 바실리카(Basilica) 형태로 꾸며져 있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이 교회는 천주교의 성당이 아니고 개신교의 어떠한 교파도 아니며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했다.

이 성전은 우리 교회 새성전과는 비슷하게 넓은 곳이 많이 있는데 전면 종탑이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웅장하며 아름답게 보였다. 정면 돌을 다듬는 부분이 우리 교회 새성전도 그렇게 조각을 하고 모양을 낸다면 아마도 돌공사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우리 교회 새성전은 개구부 형태가 면적으로 보아서는 좀 더 많고 주 출입구 부분이 좀 결점이 있기에문에 이를 7개의 고딕아치로 바꾸고 시원스럽게 트이게 꾸민다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본다고 해도 출입에는 워싱턴 교회보다는 더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

깨끗한 생활

손 경 수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清白吏」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세무공무원 K(54세)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한다.

K씨는 세무공무원 19년동안 50%이상의 잡곡 혼식이나 밀가루 분식으로 생활하고, 도시락 지참으로 청렴한 생활과 성실한 근무자세로 아직까지 자기집이 없이 1백30만원짜리 7명의 무허가 건물에서 기거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K씨의 경우는 너무 판이하다.

세칭 좋은 자리에 앉혀 놓아도 스스로 이 자리를 거부하는 정직함이라든가, 깨끗하고 성실한 근무로 납세자의 숭한 유혹을 물리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세무행정을 다룬 K씨는 인간적 차원에서 과연 본 받을만한 인물임엔 틀림없다.

특별히 그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깨끗한 자세와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발휘될 때, 믿지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출석하는 Y교회의 교우들이 자기 집에 심방왔을 때 하는 말 「세무공무원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하며, 혀를 차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아예 남의 것에 대한 동경심, 불로소득에 대한 수치심, 필요 이상의 청탁과 돈의 유혹을 외면한 것이다.

오직 성실과 근면의 생활자세로 일관한—그것도 직장을 가진 이후 19년동안—K씨의 청렴결백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다.

믿는 자의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최근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회안에 황금만능의 풍조가 은연히 스며드는 일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과 성실」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새 589〉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남는 것이 하나없이
찾으시겠네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비치리도다

이 찬송의 제목은 본래 「보석」(Jewels)이다. 세상에 보석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재단하는 방법과 광택을 내는데 따라 그 값의 차이가 달라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다이아몬드는 다듬어지는데 따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값진 물건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았을 때는 즉시 아름답게 반사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지...!

이와 같이 성도라면 누구나 다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해야 한다. 아름답고도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위해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잘 다듬어져야 하지 않을까?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져 다듬어 가꾸어져야 그의 빛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만이 귀하고 값진 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벧전 1:18-19)

이 찬송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가 피로 값주고 산 모든 보석들을 다 찾으셔서 새벽별 같이, 면류관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밝고도 영화롭게 하신다는 아름다운 찬송이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서라도 주의 명령 준행하면 참 보배로다 (3절)’

이 찬송은 커싱(William O. Cushing 1823-1903)목사가 말 3:17절 말씀에서 은혜받고 작시한 찬송이다. 그는 20여년동안 목회를 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죽은 후에는 목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찬송서를 계속해서 썼는데 300여편을 남겼다. 그가 쓴 이 찬송시에 1866년 루트(George F. Root)가 곡을 붙였는데 이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찬송으로 알려져 있다.

김 하 진 목사 <6지구심방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4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류

- 1) 칼빈주석-이사야하; 존 칼빈저. 성서교재간행사.
- 2) 로마서강해2,3; 로이드 존즈저. 서문강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 3) 매튜헨리주석<신약>; 매튜헨리저. 기독교문사, 1980.
- 4) 렌스키주석<신약>; 렌스키저. 백합출판사, 1978.

2. 구약사

- 1) 구약이스라엘사; 김희보저. 종신대학출판부. 1981, 488P.
- 2) 구약사; 브루스, F저. 유행열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340P.

3. 기독교교육

- 1)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호온, 헤르만저. 박영호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260P.

4. 기독교윤리

- 1) 그리스도인의 성교육; 마일스저. 장기순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236P.

5. 설교집

- 1) 십계명과 현대인; 박조준저. 기독교문사, 1980, 351P.
- 2) 돌아나는 헛살같이; 박조준저. 기독교문사, 1980, 341P.
- 3) 내게 힘을 더하소서; 박조준저. 기독교문사, 1980, 348P.

II. 양서

- 1)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J. Herbert Kane저. Baker Book House, 1973, 365P.
- 2) A Global View of Christian Missions: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J. Herbert Kane저. Baker Book House, 1979, 556P.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중현」편집실.....

◇ 책 소개 ◇

디 엘 무디 저, 김경신 역.

천 국

생명의말씀사, 151페이지 500원

인생은 촛살같이 지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세대가 밀어닥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걸음을 내어 디디지만 그 다음 걸음은 자옥 아니면 천국이다. 영원한 절망을 디디자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는 늘 천국의 믿음과 소망과 소식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 무디의 이 자그마한 책자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반짝이며 길을 알려주는 작은 별처럼 다시한번 우리의 소망을 천국으로 새롭게 할 줄 믿어 추천해 드린다.

그 반짝이는 페이지마다에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시민, 천국의 행복, 천국의 확실성, 천국의 부요, 천국의 상급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인용 기록된 여러 시(詩)들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같이 이 책의 내용을 무척 빛나게 한다.

아 물론 이 자그마한 책은 세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오늘의 세대와 교회속에서 「천국」을 외치는 「천국의 좋은 증언」이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다.

오 치 용 강도사 <선교부 부지도>



현재 기독교 교육은 전재한가

문 창 수 목사

1. 오늘의 교회-무엇이 문제인가?

옛날 남양군도의 어떤 추장이 이웃 섬에 가서 약탈해 온 물건 중 값진 웅단이 있었다고 한다. 추장이 그것을 혈값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추장님, 어째서 그것을 100「페소」에 팔니까?”하고 물으니 추장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100「페소」나 받았는데 100보다 더 큰 숫자도 있다는 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온 고정관념의 희생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고정관념이란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모두 옳다는 관념이다.

요즈음 교인들 중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으면 지겨울 때가 많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부흥집회하는 교회 옆을 지나가면 북소리에 맞추어 찬송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불경스런 표현이 될지 모르나 ‘악을 쓰는’ 듯한 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일부 교회에 은혜가 메마른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것이 언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성경원리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성경원리에서 빛나간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현상은 ‘병든 것’을 자각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교회의 영적 온도는 교회의 제도화(制度化)와 비례해서 강하(降下)되었다고 생각된다.

2. 제도화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여 수단을 목표로 삼는 교회이다.

일전에 어떤 성직자 모임에서 필자는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다. “요새 부흥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의 대답을 아래에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본다.

- 첫째, 십일조 잘 하는 교회
- 둘째,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
- 셋째, 봉사 잘 하는 교회
- 네째, 전도 잘 하는 교회
- 다섯째, 순종 잘 하는 교회.
- 여섯째, 성수주일 잘 하는 교회.
- 일곱째, 문제해결 해 주는 교회.

나머지 성직자들도 이상과 동일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일곱째 항목은 한사람만이 말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목표가 성직자와 교인들의 의식속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표인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인가? 이 목표를 잠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

- ① 바리새인들도 십일조 하였나? (마23:23 참조)
- ② 그들도 새벽기도했나?
- ③ 그들도 봉사했나? (마6:1-4)
- ④ 그들도 전도했나? (마23:15)
- ⑤ 그들도 순종했나? (마15:1-9)
- ⑥ 그들도 ‘성수주일’했나? (마12:2, 10, 14)

(그들이 예수님 죽일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고는 부흥하는 교회, 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알 수 없다. 제도화된 교회는 교회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조직(또는 기구)유지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교회건물, 건축, 건물유지, 보수, 난방, 냉방, 버스 등등.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교인들의 신앙보다 숫자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은 위에 적은 여섯가지를 잘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조직이나 기구유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목표에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일에 치중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나 사실은 '교인'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당회와 제직회는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이 기구유지를 의논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가?

3.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약성경에서는 조직을 별로 볼 수 없다. 조직보다 사람들과 기독교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금 많이 나오고 교인수 늘고 교인들이 일주 최소한 3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아서는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교회의 성공은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교인들 삶 속에 내면화(內面化)되고 있는가에 좌우된다. 어떤 외국 교회의 통계에서 밝혀진대로 교인들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면서도 비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거의 구별할 수 없다면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 된다. 기독교인의 최고 가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젖먹이 취급하였다. 사랑과 정반대인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전 3:1-3)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하나님 사랑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간에 흐르는 가정수가 증가할 때,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이것을 "성공"이라 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나 예산의 많고 적음이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가정이 증가하는 것에 있다.

오늘의 교회는 너무 제도화되고 있다. 이 제도화, 또는 조직을 변경시킴과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공동체의 기능은 교인들의 상호관계를 많이 맺어줄 때 회복된다. 교인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하는 데 있다. 공동체원들은 서로 잘 알고 있음으로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되어 있다." (롬 12:15) 서로 즐거워하려 하면 자주 만나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 남의 사정을 잘 알려면 각자의 삶을 마음 열어 공유(共有)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교회에 모였다가 설교를 들은 다음 서로 알 기회도 없이 꼭 흩어져 돌아간다. 이것이 사

시장철 변함없이 반복된다.

필자는 서울 어떤 교회에 가서 구역장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다.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삼년간 교회에 출석했는데 자기 외에 다른 교인들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고, 전도를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3일간 훈련기간 동안 교인들이 서로 잘 알 수 있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 부인은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보러 나갔다가 '입이 저절로 열려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다'고 한다. (전도는 공동체와 그 일원이 효과있게 할 수 있다.)

오늘의 교회의 모임은 일방통행식의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난다. 그리고 무엇을 의논하기 위해 모임 때는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의논 때문이지 성서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다. 깊은 인격적 친교 없이 성서적 가치에 쫓점을 둔 토론이나 공유없이 (공동체의식-열의 교인들은 내 형제다 하는)는 발전될 수 없으며 교인들은 신앙인격의 성장보다도 조직에 적응하는 법만을 배우게 된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유지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건물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사람들의 필요(needs)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성장은 각 교인들의 교제를 통한 은사활용에 의해 성장한다. 교회 조직표가 복잡해지면 영적 기운은 이에 비례해서 하강하게 되어 있다. 제도화된 교회의 표본은 로마 카톨릭이다.

어떤 학자는 루터가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론을 말했는데 500년 후의 오늘날의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후퇴했다고 말한다. 교인들의 은사는 묻어두고 성직자들의 은사만을 혹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교회가 수단을 목표로 삼아 교회를 제도화시키고 조직을 강화할 때 이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다. 사람이 머리가 된 것이다. 교회가 조직과 제도를 변경시켜 사람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의 진정한 가치관으로 교회의 목표를 삼을 때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부흥은 다시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온 뜻을 분명히 알자. (계속)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부부와 자녀가 함께 모여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계획에 따라 1979년 1월 7일 새가정부 개교예배를 드렸다.

1979년 1월 7일 개교

『하나님 중심·말씀 중심·교회 중심』의 가치가 되자는 교육목표하에 지도 운영탁 목사, 부지도 김경신 전도사, 부장 이동규 장로, 부감 박성수 집사·안인현 권사 등 여러 회원들이 모여 초창기의 새가정부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였다. 물론 그당시에 장소문제와 집회시간문제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였다.

교육내용은 성경강해·성경적결혼관·성경적가정관·가족심리·가정관리 등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이 가정을 이룬 젊은 부부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첫번 졸업한 가정들로서는 강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편집실에서는 주일학교 새...□
□...가정부를 소개한다. 주일학교 새가정부는 1979년 1월 7...□
□...일에 개교, 신혼가정을 하나님앞에서 모범적으로 가꾸...□
□...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가정으로 하는 것을 목...□
□...적으로 개교된지 이제 2년을 넘기면서 옴으로, 양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서 건전한 가정이 새가정부를 통해 세워지기를 바라며...□
□...새가정부를 소개한다..... <편집실> ...□

덕수·김경생·김구현·김인식·김제진·노문환·이기성·이실호·이왕로·오태용·정영래·한형식(지면관계상 아내들의 이름은 쓰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씨 등의 부부였다.

매주일 정오에 새가정부실에서 모여

1980년후부터는 교회에서 새로이 좋은 집회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동시에 집회시간도 잘 조정되어 새가정부가 여러모로 발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인제 집사 (당시 부감)의 활약으로 가족계획·태아교육·산모건강관리 등의 가정의학 상식면에서 강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정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 특별강좌가 성공적으로 열렸었는데 내용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 김창인 목사」「건전한 부부관계 / 엄승원 목사」「미래가 있는 자녀교육 / 김영규 목사」 등이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심으로 1980년에는 더 많은 가정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예배와 성구암송을

1981년에도 『말씀을 읽는 가정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말씀을 전하는 가정』이라는 목표하에 시편

* 1981년의 목표 *

말씀을 읽는 가정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말씀을 전하는 가정

시119 : 105

119편 105절을 주제성구로 하여 새로이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 생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과 특히 주요 성구암송을 착실히 하고 있다. 현재 요한복음을 끝내고 마태복음의 주요성구를 암송중에 있다.

현재 집회순서를 간단히 소개하면 집회가 시작되기 전 단합케 마음문을 열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고 집회가 시작되면 1부에 율영탁 목사의 성경강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정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교훈의 말씀을 얻고 있다.

그리고 2부에는 피터슨과 스

실제적인 성경공부

미스 부부가 쓴 『둘이 한몸이 될 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분반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용납, 성숙한 결혼생활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부교제의 원리, 바람직한 부모상」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공과를 가지고 분반공부시간에 각 가정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솔직하게 토의할 때에 신혼가정들에 있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새가정부에 나오고 있는 가정들은 모두 말하고 있다.

새가정부소속

가정은 모두 순산해

이처럼 새가정부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많은 가운데 특히 모든 가정이 순산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만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이다. 그래 새가정부에 오면 순산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이다. 이



같은 축복 속에 지난 3년동안 새가정부에는 요셉도 태어났고, 사무엘도 태어났고, 에스더도 태어났다. 그리고 마리아도, 바울도, 시온도, 충현이(!)도 태어났다. 앞으로 계속하여 모세도 태어날 것을 확신한다.

새가정부의 존재 목적은 신혼부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누리며 또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 안에서 둘이 한몸이 되는 신비로운 삶을 보다 더 뜻있게 향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올해도 새가정과 가족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산모와 유아의 건강관리, 유아교육등을 통해 새가정이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산모들에 대한 상담도 하며 위급한 때에는 믿을 만한 산부인과 의사에

게 안내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여러가지 실제적인 경험들을 대화를 통해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며 또 비슷한 문제들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해결함을 받는 은혜도 체험하고 있다.

정말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회의 여러가지 배려로 결혼 직령기나 신혼부부들을 신앙의 가정으로 이끌기 위한 새가정부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주 안에서 모범된 신앙의 가정, 신앙의 부모, 신앙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이룬 새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가정부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집회시간 / 매주 12시~1시30분
- 집회장소 / 새가정부실(서관앞, 충현도서실 입구)
- 조 직 / 지도 율영탁 목사
부장 엄필성 집사
- 자세한 안내전화 / 599-9027(율 목사님택)
446-8396(엄 부장님택)

다니엘을 생각하며



김 선 자

(선교부 교사)

헤어질 때면 으레 “살롬”하던 사람이 어느날부터 인지 “마라나타”하면서 헤어졌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기분이 내키는대로 “살롬” 혹은 “마라나타”하고 헤어질 수도 있지 무어 그리 대수롭겠는가 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조용한 가운데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것과 더욱 건실(健實)하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 변화였다. 즉, 주님과 그와의 관계가 그 말을 하게 된 만큼의 어떤 변화와 깊이를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주 미미하지만 확연히 깨닫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변화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어서 견고히 서가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으로 따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어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기의 열정으로 사력(死力)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즐겨 받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나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고 이 계획, 저 계획에 골몰하여 지치도록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 흔적을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 “아 그 사람 열심이다. 믿음이 좋다.” 하고 얘기한다. 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검토되어야 할 그 일의 당위성과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 수가 많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믿음을 일에서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원대한 비전(vision)을 지니고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지녔는가, 또 이 비전을 뒷받침하고 이루기 위한 약속의 말씀

을 얼마나 잘 외워서 작용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지닌 중대한 오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분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데에 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기질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그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가 지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진보가 없어도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보다는 로봇트와 같은 “일꾼”이 되려고 하고 또 일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일로 인하여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주님과 무관한 일을 분주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다 더욱 안 좋은 것은 그 분주한 일로 자신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으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무지에 빠지는 것이다. 참된 열정이란 올바른 지식과 이성의 작용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소홀히 할수록 전진하고 견고하게 서있을 수 없다. 아시아 교회들의 쇠퇴와 서구 교회의 몰락에서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교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초보를 소홀히 여기고 그릇된 풍조에 교회가 합세했거나 휩쓸린 까닭이다. 그것은 교회 안에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어둠이 깊었다. 그 깊음이 심하여서 앞과 뒤

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위기 의식과 함께 영적 빈곤에서 오는 갈증과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느낌은 세상이 사악해져 가고 역사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있어야 할 교회의 빛이 쇠미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를 둘러싼 흑암의 세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라 하신 교회의 존재와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한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무지를 못느끼고 현 상태에 만족해 있는 영적인 비참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이 세대가 지닌 역사적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 질문들 앞에서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자기의 길을 가던 모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무어라 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분주한 일과 골몰했던 계획에서 손을 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이 심해 좁은 길에서 실족할 것이다.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서 위협하는 흑암의 세력에 부딪힐 때마다 다니엘을 생각하게 된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폐파하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여 갔던 바벨론 왕국의 영화(榮華)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역사의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는 찬양과 감사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바벨론의 왕들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고히 세워가셨던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말씀하신바 “거룩한 씨, 그루터기, 조금 남겨 두신 자”들로서 그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이 많을수록 그 시대는 영광의 시대가 되었으며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 지극히 드물었던 시대는 환란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미증유의 역사 속에 서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참된 교회와 교회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가 그러한 것에 대해 무지함을 느끼고 그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 위에 서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애통해 하려야 한다. 온갖 오류와 미망과 그릇된 교훈에서 길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으며,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교회로서 빛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뜻을 바로 알았던 다니엘은 온전히 믿음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마라나타”하고 헤어지던 그 친구가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건설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이 땅위에 드러내시길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하실 것이다.

한국철도 기독교신우회



〈 회 장 〉

회 장 최응호 집사
부회장 김종욱 장로
" 하만진 장로
" 민척기 집사

고 문이인환 목사
" 조현명 장로
" 김동수 장로
감 사 이동일 전도사
" 장성욱 전도사
간사장 나철주 집사

부회장 이영자 집사
총 무 송일영 집사
서 기 최병우 집사

서울특별시 한강로 3가40

철도기술연구소

792-8535

3 월중 새 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미아 4구역 박현식
수유 3구역 왕현주
미아 8구역 전창범
수유 1구역 성명선
광희 2구역 고옥자
장위 2구역 구유숙
정능 1구역 정래혁
미아 4구역 연양순
도봉 3구역 김성희

● 2 지구

마 장 구역 오영진
장 안 구역 박상규
면목 2구역 박상기
악수 3구역 박명훈
답십리구역 권영진
길 동 구 역 전숙이
전농 2구역 여종호
홍 익 구 역 김순자
조 월 구 역 한용택
길 동 구 역 문원춘
조 월 구 역 조화순
장 안 구역 유영자

풍납 구역 유승엽

● 3 지구

악수 3구역 박명훈

● 4 지구

보광 1구역 조순예
대 치 구 역 안인환
선정 1구역 오치용
영 동 구 역 김정순
현 대 구 역 이정운
강 남 구 역 양혜원
신사 1구역 안필남

● 5 지구

용산 1구역 김진규
신 길 구 역 이은주
팔동 1구역 박경호
상도 3구역 성미진
방배 1구역 박성자
시당 1구역 조정희
신 길 구 역 임성숙

● 6 지구

문 래 구 역 정인선

북아현구역 김인수
공향 2구역 박진환
마 포 구 역 한정자
인현 3구역 최희순
용 문 구 역 박금순
화곡 1구역 한만동
동 교 구 역 장춘매
대 흥 구 역 박명차
이 춘 구 역 김정자
신 춘 구 역 권용찬
인현 3구역 안봉자
염 리 구 역 김태영

신 정 구역 김준애

● 7 지구

송인 2구역 김기철
오 정 구 역 최유순
서대 1 구역 박현순
서대 2구역 이가수
종 로 구 역 박영희
송인 2구역 이계수
송인 1구역 김정애
서대 1 구역 이현숙
종 로 구 역 유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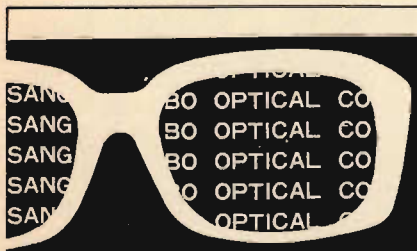
* 축하합니다. (3 월중 결혼)

- 최장환군과 김태임양(이흥선집사 딸) 3일
- 박혜숙양(유치부교사) 7일
- 홍인선양(주교교사) 7일
- 김정남군(김치길씨 윤봉옥권사 2남) 11일
- 이양우군(초등부지도전도사) 17일
- 이강술군과 김희영양(박경복권사 딸) 17일
- 김광철군(신림구역)과 이성순양(중등부교사) 19일
- 이래성군(장안구역)과 김성자양(제이성가대원) 21일
- 권혜연양(화양구역) 21일
- 조수현군(최인식집사 아들) 21일
- 박현식군(미아 4 구역)과 황원실양(남태문구역) 18일
- 정상수군(정인옥씨 유감순권사 2남) 25일

- 이인수군(김순초권사 4남)과 차진순양 26일
- 임희연양(박정남권찬 딸) 30일
- 김귀련양(공향초권사 딸) 30일

* 위로드립니다. (3 월중 별세)

- 김종열씨(반포 4 구역 이종갑씨 모친) 24일
- 장선숙씨(부천 1 구역 정명화씨 2녀) 24일
- 이명달공로전도사 2일
- 이정엽집사(강남구역) 4 일
- 노동민씨(김화련권사 부친) 10일
- 김성배장로(김종연집사 부친) 11일
- 김인선씨(우이구역) 16일



상보안경원

대표 갈 형 석

1. 각 안과 의원처방을 정확하고 신용있게 만듭니다.
1. 고굴절 렌즈로써 고도의 기술로써 봉사합니다.
1. 경주남석, 전문취급업소로써 보증판매합니다.

명보극장네거리 常寶眼鏡院 267 - 0946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2)

제 2조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제 6조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 능이 있었는데 시험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한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는 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신조는 매 조항이 성경말씀을 간추려 놓은 것이며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꾼하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신의 신조가 정확하고 확신이 있어야 남을 말아 지도하며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둘째로는 예배모범을 가르쳐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나 일꾼들이 예배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한 자들이 많은 것 같다. 아마 우리 제직들에게 예배모범이 몇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 1장에 나타나 있는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제 5장 공식

기도에 대하여 공식기도는 어떤 기도며 어떤 점을 기도하는 자가 주의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자가 많이 있다. 일꾼은 마땅히 예배모범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여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떡이나 만들며 잔치일에 분주하거나 공식기도를 하는 자가 설교자의 설교할 시간을 다 점령해 버린다는지 해서는 안되겠다.

일꾼이 진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이 교제면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으면 교인을 선도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와 반면에 일꾼이 진리의 모든 것에 좀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면에 덕스럽고 아름다울 때 교인들을 잘 선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일꾼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배우고 나가서 남을 전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좋은 결과가 이룩되어 질 것이다.

다섯째로 개인전도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금년 우리 교회에서는 확장원들의 개인전도를 권장하고 있다. 이 전도는 교회에 부여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중에 제일 큰 명령이다. 따라서 복음전도는 성도라면 모두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꾼은 이 개인 전도방법을 교육받아 모든 교인으로 전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 전도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나가서는 새신자를 얻었을 때 그 새신자를 어떻게 신앙이 자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지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 일꾼은 그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충실히 발휘할 때 일꾼된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부흥하며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금·은 시 계

金正泰 집사

약도

경부선

영동호남선

터미널파출소

중앙분수대

신반포 4차 APT

우성 APT

신반포 6차 APT

터미널 강남지하상가(중앙분수대) 599-3776, 593-0192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1. 한인교회 정기성례식

4월 12일에 금년도 정기성례식을 거행 학습 4 명, 입교 1 명, 수세 2 명, 유세 5 명.

2. 오지지역현황

장년 16명, 어린이 5 명이 결신, 9 명에게 세례.

3. 선교사님 일시 귀국

선교사님은 5월 6 일 일시 귀국하셔서 5월 21일까지 체재하심. 본교회에서 5월 10일 주일대예배 I, II, III, IV부 선교 및 5월 11일 AM.7 시에 선교 실행위 조찬기도회등의 바른 일정속에 지나시면서 인사, 보고, 산업시찰, 설교, 성도의 교제등을 가지심

기도제목

- ① 회교세력의 영향하에 선교사활동이 제한되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책변경을 위하여.
- ② 인도네시아어 성경번역 및 반포사업을 위하여
- ③ 이미 이루어진 전진기지로써의 위치가 확보되도록
- ④ 선교사님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홍 콩 - 홍 중 만 선교사

1. 한인교회

- ① 성례거행 : 4월 12일에 세례 10명, 학습 8 명, 유세 3 명, 입교 1 명, 계 22명
- ② 4월 19일에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를 부딪가에서 드림.
- ③ 4월 21일~25일까지 부흥회를 마칩 (정상우목사님을 강사로 모심).
- ④ 4월 25일~27일까지 수양회를 마칩 (강사 정상우 목사님, 참석자 76명)

2. 중공선교

- ① 중공에서 계속 우편물등을 접수하고 성경, 녹음기, 도서등을 우송, 인편으로 전달.
- ② 마카오교회 4월분 보조금 (홍콩불 5,200) 지급.
- ③ 정상우목사님과 마카오교회 방문

기도제목

- ① 중국내 교회들간의 화목을 위해

② 부흥회, 수양회 후의 좋은 결실을

애 굽 - 이 준 교 선교사

1. 3월 30일~4월 2일 카이로 시내 파잘라 복음주의 교회에서 있는 애굽 복음주의교회 교단총회인 제 91차 나일대회(Nile Synod)에 참석.

2. 4월 2일 카이로한인교회철야기도회

3. 4월 12일 카이로한인교회 성례식거행 (학습 3명, 세례 1명, 유아세례 5명)

4. 4월 16일 애굽복음주의교단 총무사무실방문, 애굽교회지원금 4월분 전달.

5. 4월 19일 카이로한인교회 부활절 예배드렸고 저녁에는 이 선교사님사택에서 온 교인이 모여 축하 예배 및 성도의 교제.

6. 이 선교사님 사택에 전화가설, 전화번호는 카이로 634620번.

기도제목

- ① 카이로한인교회의 부흥과 애굽선교를 위하여
- ② 선교사님 가정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부탁.

서 독 - 육 호 기 선교사

1. 한인교회

- ① 뷔즈부북한인교회 대심방을 마칩.
- ② 비스바덴한인교회와 하나우한인교회는 성례식 앞둔 특별성경공부
- ③ 4월 12일 비스바덴한인교회에서 성례식 (학습 1명, 세례 4명, 유아세례 2명)
- ④ 4월 12일 하나우한인교회에서 성례식 (학습 6명, 세례 5명)
- ⑤ 각 교회별로 부활절예배 및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눔.

2. 선교사님 일시 귀국

육선교사님은 가사사정 및 선교사업보고차 5월 8일에 일시 귀국하여, 설교 및 해외복음선교회실행위원회에서 가진 조찬기도회 기타 집회에서의 보고, 교제등을 갖고 산업시찰등의 바른 일정을 지내시다가 6월 1일 출국예정입니다.

기도제목

① 현지선교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수양관의 건립을 위하여

② 선교사님과 부친의 건강을 위하여

③ 현재 예배드리는 뽀츠부룩 군부대교회에서의 동시통역용 헤드폰사용이 가능하도록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1. 4월11일 W.O.N.S에 참석, 은혜를 나눔.
2. 4월12일 성례식거행
3. 4월12일 애굽인교회에 참석, 은혜를 나눔.
4. 선원선교부에 매주 3일씩 협력하도록 요청받아 허락.
5. 4월21일 대심방시작하고 계속중.
6. 4월27일 영주권허락받음.

기도제목

이제부터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케 된 선교부의 정착을 위하여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

공한미착

기도제목

- ① 한인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 ②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1. 활동사항

- ① 3월30일 교역자연합회 총무로 피임.
- ② 4월6일 교회헌당식과 임직식 거행
- ③ 4월12일 성례식(학습세례34명, 성찬 148명)
- ④ 4월19일 부활절새벽연합예배설교
- ⑤ 4월21일 대심방중

기도제목

- ① 한인교회 안정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②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칠 레-유 재 일 선교사

공한미착

기도제목

선교사님의 어학공부를 위해



〈구동레조교회의 어느 성도 가족과 함께한 서만수 선교사(우측)〉

인 도-엘리야 겔간 선교사

1. 말레이시아 여행을 마침.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좋음.
2. 싱가포르 제자훈련원(D.T.C) 방문.

기도제목

신약성경 번역문제가 원활토록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1. 6월경에 에리모진료원장으로 부임 예정.
2. 이권사님의 부인성경반 계속 활기.
3. 부활절예배 및 주일예배 계속 인도함.

기도제목

1. 새선교예정지 에리모진료원 일대의 선교사역 위해
2. 지금까지의 선교사역의 결실이 잘 보존되도록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1. 4월27일부터 강의 시작되고 5월말까지 계속 논문작성하면서 평신도선교의 과업을 계속 수행중임.

기도제목

선교사님의 전도결실 및 논문통과를 위해

본부소식-해외복음선교회

5월6일~21일에 걸쳐 서만수선교사님이 일시 귀국하셨고 5월8일~6월1일에 걸쳐 육호기 선교사님이 역시 귀국하심으로써 본부는 두분의 일정 뒷받침에 진력함.

총회전도부 주최

서울·부산 복음화대회 성황

총회전도부(부장 박명수목사)가 주최한 복음화 대집회가 부산과 서울서 각각 열려 큰 성황을 이루었다.

부산에서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신부산교회당(이영수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에서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우이중앙교회당(박기풍목사 시무)에서 서울 남서울중앙교회 시무 피종진목사를 강사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농어촌교역자를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했는데 1천 4백여만원의 헌금이 들어왔다.

이 돈은 농어촌교역자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충당하게 된다고 총회 전도부는 밝혔다.

본교단 군목파송예배

총회 군목부에서

총회 군목부(부장 설명도목사)는 지난 4월 15일(수) 오후 7시 신용산교회당에서 입대군목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설명도목사 사회로 진행, 군목단장 전동식목사의 기도, 정문호목사의 「신앙의 용사」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정목사는 설교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십자가의 용사로서 복음들을 나갈 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전심전력으로 복음사역에 임함으로 승리하라」고 당부했다.

북한선교회 순회집회

대전·대구·부산·전주지역에서

북한선교회(이사장 김창인목사)는 5월 23일 통일촌교회당에서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린다.

한편 동회는 지난 4월 초순부터 북한선교를 위한 대도시 집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4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대전중앙교회당에서 김창인, 서만수, 이만열목사를 강사로 모였다.

그리고 5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대구대령교회당에서 김창인목사를 강사로 대구집회를 열고, 부산지역 집회를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청교회당에서, 전주지역 집회를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광교회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도 비혜른 봉사상

신동욱집사가 받아

금년도 비혜른 봉사상을 신동욱집사가 수상했다.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한국루터교회 센터에서 봉사상 수여 예배가 드려졌다.

수상자 신동욱 집사는 자신이 신체장애자이면서 25년간 신체장애자들에게 시계기술을 가르치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왔다.

그는 3세때 얻은 신체장애와 병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1956년부터 신체장애자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구세군 제73차 총회

교회확장운동에 직선

구세군 대한본영(사령관·김순배)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73차 총회를 열고 구세군의 의식화, 대회화, 황성화를 다짐했다.

만국본영「헌터」동양부장 주제로 열린 동 총회에는 1백65개 영문에서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사관총회와 가정단체회, 남성병사회, 연합구명회 등으로 진행했다.

구세군은 5백영문과 10만명 교우를 확보하여 생동하는 교단상 정립을 위해 총 진군할 것을 73차 총회에서 다짐했다.

잔송가 공회

각분과위원 위촉 마쳐

한국 찬송가 공회의 12인 위원들은 지난 4월 24일 각 분과위원을 위촉하는 회합을 갖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각 분과위원을 위촉했다.

공동회장 이영수목사 사회로 진행된 동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각 교단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위촉된 각 분과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가사분과 : 차영배, 신성종, 오병수, 엄문용, 김현명, 심군식, 도한호, 서형선. △ 음악분과 : 서수준, 이귀자, 김성호, 구두희, 나운영. △ 교육문분과위원 : 조용기, 김희보, 김득용, 맹용길, 임옥, 김호식, 한영철, 오병세. △ 편집분과위원 : 박영기, 임승원, 이우호, 이창로, 이외호, 조문경, 유홍목, 오충일. △ 공동총무 : 김성호, 오석용.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12:3)

활발한 총동원전도

매주 각 예배마다 수십명씩 새신자 몰려

지난 4월 한달동안 전도훈련을 실시하고 5월의 총동원전도의 달로 접어 든 교회는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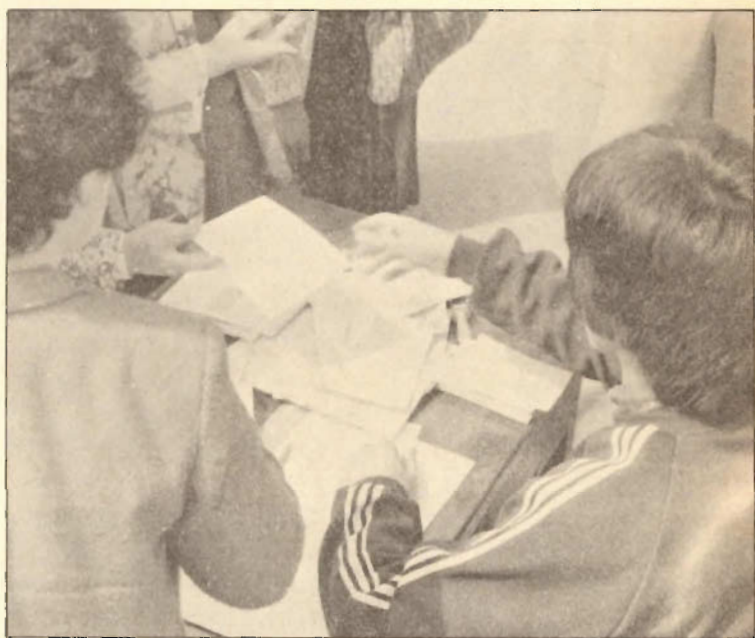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 5월의 총동원전도는 1차로 접수된 태신자카드를 정리하며 다음 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총동원전도의 한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째주의 구역 및 학급총동원전도의 주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오월들어 매주 각부 예배때마다 수십명씩 새신자가 소개되기도 하고 있다.

전 교역자 및 전도위원회 산하 각부의 임역원 및 회원들이 동원되어 새로나온 사람에게 「환영」의 리본을, 또 인도해 온 사람에게는 「인도」의 리본을 달아 주고 또한 처음나온 사람의 카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

총동원전도를 계획·관리·실시하고 있는 전도위원회에서는 금번 총동원전도로 약 1,000여명의 새신자가 생기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열심으로 전개 될 총동원전도의 남은 일정은 세째주(오늘)의 구역 및 반 총동원 전도와 네째주의 추적 총동원전도(태신자중 그때까지 교회 출석을 안하고 있는 태신자의 전도)와 다섯째주의 육성총동원전도(태신자중 교회출석한 사람을 방문 확인)가 남아 있다.



〈태신자와 함께 나와 등록을 하고 있다〉

이처럼 5월의 총동원전도가 끝나면 6월 첫주에는 5월 한달동안 전도하여 생긴 새신자를 초청하여 저녁예배를 결신자 환영예배로 드린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총동원전도를 통하여 얻은 새신자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별 효과가 없게 된다. 금번엔 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주일학교 새신자부나 각 구역을 강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부 주일학교에 구역조직을 두고 새신자에 대한 관리를 계

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역에는 구역육성 담당원사를 각 협력구역(46개 협력구역이 있음)에 1명씩 배치하여 새신자 육성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매주 수십명씩 새신자가 몰리고 있어 그렇잖아도 좁은 예배당이 더욱 좁아 제직들이나 주교교사 또한 기신자들은 될 수 있는대로 1부와 4부예배에 참석했으면 한다.

5월의 총동원전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전도에 열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만수·육호기선교사

선교협의회차 귀국

인도네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서만수선교사와 서독에서 수고하시는 육호기선교사가 선교관계 협의차 일시 귀국하였다. 서선교사는 지난 5월 6일, 육호기선교사는 5월 8일 각각 귀국하였다.

두분 선교사는 5월 11일 오전 7시 선교 실행관계자들과 선교실무회의를 갖고 서울과 지방의 각 교회에서 선교 및 강의를 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5월 10일, 주일 1·2·3·4부 예배의 설교를 서만수선교사가, 5월 17일 주일에는 육호기선교사가 각각 하기로 했다.

서만수선교사는 5월 21일에, 육호기선교사는 6월 1일에 각각 출국하게 된다.

주교 모두 16부로

주일학교 장년새신자부의 학습반·세례반을 각각 승격시켜 학습반을 장년새신자 1부로, 세례반을 장년새신자 2부로 하기로 하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모두 16개 부서로 됐다.

새로 승격된 장년새신자 1부의 부장은 현재 청년부 부감으로 수고하던 송기홍 집사를, 장년새신자 2부는 장년새신자부 부장이었던 박인세 집사를 각각 임명했다.

그동안 장년새신자부는 부장만이 통합운영되었고 부감이나 지도진, 교사들은 별도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부현교회 교역자 부임

우리 교회의 지교회인 부현교회에 최상식전도사가 새로 교역자로 부임했다. 한편 이를 위해 지난 4월 19일 전도위원장이 최

석주장로와 남성호목사, 김방전장로등이 부현교회를 탐방했다.

교역자 및 평신도

농어촌교회 초청훈련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훈련이 금년에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이어 열리게 된다.

금년에도 충청기도원에서 열리게 될 금반 초청훈련은 강원도 및 충청남북도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각 100여 명씩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는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위한 시도로 평신도 초청훈련은 1972년부터, 교역자 초청훈련은 197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성경연구원 임원조직

교회는 성경연구원의 임원을 조직 발표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원장, 원감, 지도, 부지도로 구성됐다.

이사회 : 당회장(이사장), 원장(당회장이 원장이 아닌 경우), 교육위원장, 당회서기, 남전도회장, 출판국장, 권사회장, 제 1 여전도회장, 제 2 여전도회장 (9명)

원 장 : 당회장

원 감 : 이동규장로

지 도 : 최봉호강도사

부지도 : 김경성전도사

성경연구원은 지난 3월 전교인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성경학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직되어 일해오고 있다.

북한선교분과

차량전도 계속

전도위원회 북한선교분과(담당: 조준상강도사)에서 실시하는 지

방순회 차량전도사업은 계획대로 실시, 매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중에도 4월 6-11일(충남, 경기지방)과 4월 20-25일(충남북, 경기지방)에서 전도했는데 연 집회인원이 3750여명에 달하며 277명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차량선교는 격주로 나가서 1주일 동안 지방을 다니며 영화상영을 하고 전도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

가. 성가부

① 임 명

제 1 성가대	조해순	앨토
제 3 성가대	곽숙단	앨토
제 3 성가대	김성희	앨토
제 3 성가대	김완주	테너
제 3 성가대	고제숙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장춘매	앨토
제 3 성가대	권희순	소프라노

② 퇴 임

제 1 성가대	한경애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이인옥	앨토
제 1 성가대	박병승	베이스
제 3 성가대	김연희	앨토
제 3 성가대	강영옥	앨토
제 3 성가대	황경숙	앨토
제 3 성가대	임혜영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김의석	베이스
제 3 성가대	최길수	베이스

2. 교육위원회

가. 주일학교

① 임 명

유년부 이규숙(여) 임시교사
 유년부 황옥남(여) 임시교사
 유년부 정영래(남) 임시교사
 장년부 표완식(남) 임시교사
 노년부 민건식(여) 임시교사

② 퇴 임

유치부 이재식(남)
 초등부 차의숙(여) 개인사정
 초등부 문옥희(여) 개인사정
 초등부 홍정옥(여) 장복으로잔
 근
 초등부 심금숙(여) 개인사정
 산전부 김구현(남) 십일조현금
 위원
 산전부 장정숙(여) 가정행렬
 산전부 박언규(남) 개인사정
 초등부 이상원(부교역자)
 군일대

토막소식

*...주일학교 어린이 새신자부는 오는 6월 14일 윤숙희선생의 연구수업을 갖는다. 장소는 도서관.
 *...유치부는 6월 28일 어린이 성경퀴즈대회를, 또한 저녁에는 어린이 전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6월 10일에는 지경애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일본예성의 자녀교육」이란 제목으로 교사 특강을 갖는다.
 *...유년부는 6월 7일 자체 사무점열을 실시하고 또한 이승근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교사특강을 갖게 된다.
 *...초등부는 오는 6월 21일 자체

사무점열을 하고 26일에는 새가 정부실에서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고등부는 6월 5일 먼터회 및 성가대 임원수련회를 기도원에서 가지며 6월 15일에는 교사 철야기도회를 갖는다.
 *...대학부는 6월 5일 회원기도회를 갖고 6월 26일에는 전반기 학습평가회를 가질 계획이다.
 *...장년부는 6월 21일 학생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년부는 6월 7일 노년부실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가진다.
 *...선교부의 장년반은 6월 7일 당회실에서 김영희장도사를 강사로 하여 학생특강을 실시하게 되고 12일에는 새성전에서 교사학생철야기도회를 가질 계획이다.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 배후
 • 매 주 수요일 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화 101번을 거서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각종통계

1981. 4. 5. (매월 첫 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부	204	395	579	총세대수	3,897			
		II부	438	988	1,426					
		III부	429	804	1,233					
		IV부	346	571	917					
		계	1,417	2,729	4,146					
배	주일저녁	삼일저녁	193	493	686	신	교인	남	3,631	
		어린이새신자부	28	34	62			여	5,275	
		영아부	158	117	275			계	8,906	
		유치부	118	137	255			세례	남	1,975
		유년부	195	217	412				여	3,403
주	일	초등부	216	211	427	교	인	계	5,378	
		중등부	194	180	374			유아	남	507
		고등부	129	153	282				여	419
		대학부	85	100	185			세례	계	926
		청년부	83	119	202				학습	남
하	교	장년새신자부	48	139	187	향	교인	여		411
		장년부	29	271	300			계	710	
		노년부	34	104	138			원인	남	850
		산업교육부	11	106	117				여	1,942
		선교부	30	75	105			교인	계	1,892
새가장복	17	24	41	향	교인	계	1,892			
합계	3,175	5,601	8,776							

5월의 행사

- 1 일 산업전도회·조찬기도회
- 2 일 정기당회
- 3 일 어린이 주일
제직회·재정위원회
- 8 회 교회전체철야기도회
- 9 일 경로회
- 10일 어버이 주일
남전도회월례회·권사회월례회
- 17일 여전도회·재정위원회·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출판국월례회
- 24일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건축위원회월례회
- 29일 정기당회
- ※ 5월은 총동원전도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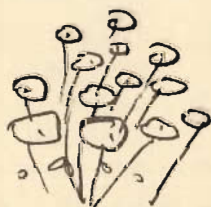
편집하고 나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또 교회로서 총동원전도의 달이 겹쳐 교회 전체가 온통 북적거린다. 가정의 달에 집중하여 5월호를 꾸며 보았다. 특히 가정에배 특집을 마련하여 가정에배의 의미와 그 방법등을 여러 가정을 통해 살펴 보았다. 모두가 느끼기는 습관적이고 권위적인데서 보다 실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해 가는 가정에배를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가정에배에 대해 고민하는 가정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2월호에 한번 실리고 못 실렸던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이론 및 방법을 계속해서 실리게 되었다. 필자 문창수목사님께서 매우 어

려운 가운데에도 귀한 글을 주셨다.

바라기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실행에 관심들이 돌려졌으면 한다.



*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순 오테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배

월 간 총 현

5월호

제9권제5호

통권 제 88 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조현명

주 간/윤형철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5월17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산업전도회는 고난주간의 1주일 동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관해서 인도했다〉



〈여성성가대는 4월 12일 주일 저녁 고난주간을 맞아 「가상(架上)의 일곱말씀」이란 곡을 연주했다〉



〈주일학교 고등부는 부활절을 맞으며 김두완곡인 「승리의 그리스도」를 4월 15, 18일 두차례 연주했다〉



제2 성가대는 부활주일 저녁예배시(4월 19일)에 헨델의 「메시아」중에서 발췌하여 연주 찬양했다



· 5월 총동원전도의 달을 맞아 교회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매 주일 저녁 전도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4월 마지막 주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역요원과 주교교사를 대상으로 전도훈련을 실시했다. 전도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에서〉

실로암
못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쁨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겉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시편127편과 128편 중에서〉